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작물 피해 복구” 대통령에 건의

김관영 도지사, 중대본 영상회의 참석 “도내 집중호우로 논콩 등 피해 심각… 별도 복구대책 등 필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전북 지역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논콩 등 농작물 피해의 복구 대책 및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 13일부터 익산 499mm, 군산 484mm 등 도내에 많은 비가 내렸다”며 “이로 인해 도로파손 및 농경지 시설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며 9,577ha를 비롯해 논콩 4,533ha, 시설원에 412ha 등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논콩, 시설원에 등의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복구대책 및 군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호우 관련 실국별 중점 관리 사항을 제시하며, “19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편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공직자의 자세로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 도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전 공직자는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단 한편의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지시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지역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논콩 등 농작물 피해의 복구 대책 및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배수 후 도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관련 부서 및 시군에서는 피해 현장을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히 응급 복구해 2차 피해를 방지하라고 전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관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봉산 등과 함께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도민들

께서는 선제적으로 마을화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전북도내에 평균 308.8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도내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합라 510mm로 가장 많고, 군산 493.9mm, 완주 384.8mm, 익산 346.9mm, 전주는 338.1mm 등이다.

전북도와 전주시상지청은 오는 19일 오후까지 전북에 추가적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있으며, 현재 도내 14개 전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은 호우 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초고순도 수산화리튬·탄산리튬 제조공장, 새만금에 첫 삽

하이드로리튬·리튬포어스 새만금 군산공장 착공

‘한국경제 세 동력’ 배터리 산업 성장에 큰 힘 예상

군산시는 17일 리튬종합소재기업인 (주)하이드로리튬·(주)리튬포어스의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및 탄산리튬 제조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진3면)

이날 착공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강인준 군산시장,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많은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념 커팅 및 시삽 행사를 가졌다.

(주)하이드로리튬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군산공장에서 배터리등급의 초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주로 국내 배터리 부품 소재 생산업체에 리튬을 공급할 예정이다.

관계사인 (주)리튬포어스는 페리튬전지재료에서 수산화리튬 원재료인 탄산리튬을 추출해 (주)하이드로리튬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배터리 등급의 수산화리튬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84%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번 이 두회사의 새만금 군산공장 투자로(약 4,900억) 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이 본격화 되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는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인준 군산시장은 이번 두 회사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투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개통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에 따르면 남북도로는 잼버리 준비 수송차량 진입을 위해 19일부터 25일까지 수진C 일부를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된다. 이후 28일부터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새만금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북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고 새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북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다. /뉴시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취재기자(원주)	”	”

- ▲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전북도,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군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만료 따라

150억원 규모...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9900만원

지난 4월 4일 군산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라 금융부담 등 기업이 겪을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그간 자동차·조선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례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는 고금리 영향으로 금융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전북도 12억원, 군산시 13

억원, NH농협은행이 5억원을 각각 출연해 30억원을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50억원 규모로 보증을 실시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9,900만원이다.

특히, 전북도는 24개월간 2.5%의 대출이자율 보전하고, NH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또는 자동차·조선업 기자재 제조업체다. 또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며, 자동차·조선 관련 수주 실적 잔고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민생 최우선, 진심을 담은 의회!

항상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의회 고창군의의회







